

원저

龍城山人 李昌遠의 四象學說과 體質鍼에 대한 考察

안창범 · 윤현민 · 허재영 · 권혜연

동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경혈학교실

Abstract

A study on Chang-Won Lee's theory of sasang and acupuncture of constitution

Chang-beohm, Ahn · Hyuon-Min, Youn · Jae-young, Hea · Hae-Yon, Kwon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in Dong-Eui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review Chang-Won Lee's theory of Sasang and acupuncture of constitution

Methods : We have investigated Chang-Won Lee's unknown literature " Medicine of sassang "(四象醫學)

Results : Constitutional acupuncture is based on the diversity of human being and medically developed the response variation to disease and acupuncture. The diversity is due to the Organ's Congenital Formation Variation based on human nature and it is categorized as four from physiology, pathology, symptoms, to therapy. Chang-Won Lee's constitutional acupuncture discriminated constitution of comparison palpations of right and left both sides. He insisted that constitution only four type (Sasang), not exist man of To-Hyoung (土形人) in "young -chu"(靈樞) and his constitutional acupuncture all used Jung-kyuck (reinforcement acupuncture method) and Seong--kyuck(reducing acupuncture method) of Sa-am(舍岩)

key words : Chang-Won Lee, theory of Sasang, Constitutional acupuncture

- 접수 : 2001년 10월 26일 · 수정 : 12월 21일 · 채택 : 2002년 1월 7일
· 교신저자 : 안창범, 부산시 진구 양정2동 산 45-1 동의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침구과(Tel. 051-850-8610)
E-mail : cbahn@hyomin.dongueui.ac.kr

I. 서론

東武 李濟馬 先生은 少陰人 泛論의 말미에 “내가 듣건대 少陰人 中氣症 舌卷不語한 사람에게 合谷穴을 刺鍼하니 效果가 있었다 한다. 其他 諸病에 藥을 써서 速效를 보지 못한 경우에 鍼으로써 速效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鍼穴에도 升降緩速之妙에 따라 太少陰陽四象人의 穴을 應用해볼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를 계속 考察해서 (體質鍼을) 提示하지 못하였으니 後代에 이 方面에 관심을 가진 有能한 사람이 있으면 이에 대한 研究를 하기 바란다” 라고¹⁾ 言及하였다. 이 少陰人 泛論의 句節에 언급한 體質과 鍼 治療의 連繫性에 關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後學들이 研究하여 多樣한 體質鍼法을 提示하고 있다.

이병행氏의 太極鍼法과 權度沅 先生의 八體質鍼, 廉東煥 先生의 五象體質醫學에 依한 體質鍼, 권영식氏의 鍼診에 依한 體質鑑別, 金東匹 先生의 左右比較脈診에 依한 體質鍼, 龍城山人 李昌遠 先生의 體質鍼 等 多樣한 體質鍼法이 提示되었는데, 各學者 나름대로의 獨창성 및 臨床의 效果는 일부 인정할 수 있으나 理論的 배경에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²⁾

첫째, 東武公의 四象醫學에서 말한 人體臟腑의 概念과 陰陽五行의 觀點에서 본 五臟六腑는 그 차이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四象醫學에서의 肺脾肝腎이라 함은 四焦의 개념과 喜怒哀樂의 性情이 升降 개념으로 연결되어 心을 一身之主宰로 삼고 性情이 지나치거나 促急함에 따라 肺脾肝腎의 氣가 영향을 받아 臟局大小가 發生하므로 四象人이 나누어진다고 한다. 그런데, 四象醫學에서 肝이라 하여 陰陽五行의 觀點에서 본 肝과 同一하다고 보고 五行의 相

生相剋通變을 이용한 五行鍼法을 提示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問題이다.

둘째, 이병행氏의 太極鍼法은³⁾ 火土同胞의 觀點에서 脾를 火로, 心을 土로 對應하여 運用하고 있다. 그러나 五行 通變의 人體 適用에 있어서 火土同胞이외에 金土同胞, 水土同胞 等 해당 屬性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데, 心經의 穴을 運用하기 위해서 脾를 火로, 心을 土로 對應시킨 說明은 考慮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權度沅 先生의 八體質鍼은⁴⁾ 臟腑의 大小에 따라 五行의 通變과 先生의 臨床的 經驗을 바탕으로 體質鍼 處方이 構成되어 있다. 본래 十二經絡의 構成體系는 手經 或 足經-三陰三陽-五臟六腑 순으로 짜여져 있다. 즉, 手足의 三陰三陽經이 風寒暑濕燥火 六氣의 相互承制關係와 연결되어, 標本中氣論과 開闔樞의 규율에 맞게 構成되어 있는 것이 十二經絡⁵⁾이며, 따라서 十二經絡을 治療하는 鍼法 構成도 이런 規율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權度沅 先生의 八體質鍼 處方은 臟腑의 大小에 따라 鍼 處方을 構成했는데, 이 點은 考慮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龍城山人 李昌遠 先生의 四象體質醫學이나 金東匹 先生 같은 경우는 左右比較脈診에 의해서 體質을 鑑別하며, 權度沅 先生의 八體質鍼도 脈診을 통해서 體質을 鑑別하는 것이 關鍵이다. 물론 脈診은 韓方의 固有한 四診法中 하나로 重要한 部分인 點은 부인할 수 없고, 脈診에 의한 體質 鑑別은 그 유의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고 있으나, 臨床經驗이 적고 脈診이 익숙하지 못한 韓醫師가 體質鑑別을 爲한 脈診을 할때, 診斷上의 오류가 發生할 可能性이 있다는 點이 問題이다.

本 論文에서는 아직 미발표된 龍城山人 李昌遠 先生의 四象學說과 體質鍼을 소개하고, 그 內容을 中心으로 考察하였다.

II. 연구방법

龍城山人 李昌遠先生的 四象醫學과 體質鍼은 그의 筆寫本 著書인 《四象醫學》⁶⁾의 內容을 텍스트로 삼았다. 《四象醫學》의 內容中에는 龍城山人이 본 四象體質의 道출원리와 八卦脈型 및 四象體質人의 食餌法, 藥治法, 鍼治法 및 攝生法이 포함되어 있지만, 本 論文에서는 龍城山人이 主張한 四象體質의 理論과 體質鍼을 中心으로 考察하였다.

III. 본론 및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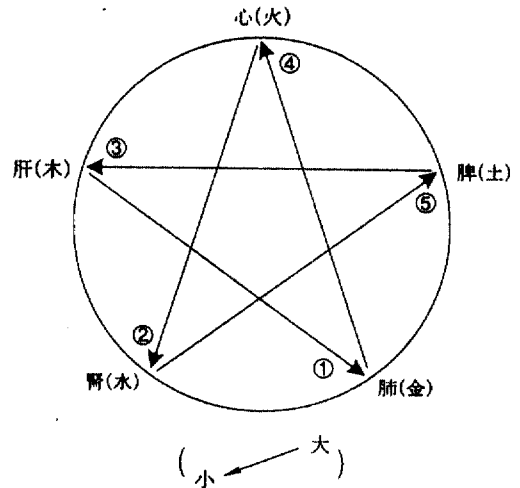
1. 내용 소개

李⁶⁾는 그의 著書 《四象醫學》에서, 宇宙는 陰陽으로 나누어지고, 그것은 각기 木火土金水의 五行으로 形成되어 있다. 小宇宙인 人間도 陰陽의 調和로써 男女가 생기고, 그것은 각기 五臟(五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人間體質은 당연히 五行(象)人으로 分類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五臟은 肝心脾肺腎(木火土金水)을 말한다. 五臟의 大小에서 大는 形大·氣強·實熱을 말하고, 小는 形小·氣弱·虛冷을 말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假稱) 木形人 - 肝大肺小, 火形人 - 心大腎小, 土形人 - 脾大肝小, 金形人 - 肺大心小, 水形人 - 腎大脾小의 五行(象)人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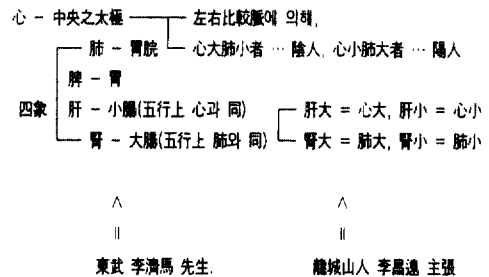
그런데 왜 東武 李濟馬 先生은 太陰人 - 肝大肺小, 少陽人 - 脾大腎小, 太陽人 - 肺大肝小, 少陰人 - 腎大脾小라하여 人體를 四象人으로 나누었는지에 대해서, 李昌遠(以下 李)은 다음과 같이 主張하였다. 東武公이 《東醫壽世保元·四端論》¹⁾에서 五臟之心은 中央之太極이요, 肺脾肝腎은 四維之四象으로 나누었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그림 1. 五形人의 分類



⑤	④	③	②	①	即
水	金	土	火	木	五形人
形人	形人	形人	形人	形人	
腎大	肺大	脾大	心大	肝大	五象人
脾小	心小	肝小	腎小	肺小	

표 1. 이제마의 四象醫學과 李昌遠의 四象體質 비교



즉, 李⁶⁾는 人體에 있어서 左는 陰이고, 右는 陽이며, 脈으로 左右를 比較하여 左(陰)心大·右(陽)肺小者와 右(陽)肺大·左(陰)心小者의 두 體質로 分類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중 心大 肺小者는 陰人이고, 心小 肺大者는 陽人이다.

이때 心大肺小란 心이 크고, 肺가 작다는 말이

아니라, 左右寸脈을 비교해서 환자의 左手脈(心)이 右手脈(肺)보다 크면 心大肺小이고, 환자의 右手脈(肺)이 左手脈(心)보다 크면 心小肺大이다. 또, 心大肺小者는 陰人이고, 心小肺大者는 陽人이라는 말도 相對的인 개념으로 보아야지, 體質上 心小肺大者는 陰人에 속하거나, 心大肺小者는 陽人에 屬한다고 보면 이는 잘못된 개념이다. 여기서의 陰人·陽人은 左-陰-心-血과 右-陽-肺-氣로 나누었을때의 陰陽人이지, 陰人中에 太陰人·少陽人이 있고, 陽人中에 少陽人·太陰人이 있다는 말은 아니다. 이를 心大肺小者 陰人과, 心小肺大者 陽人으로 각 나누어 左右比較脈診과 결부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陰人(心大 肺小者)

心大者(左寸 > 右寸)에서 양쪽 關部를 비교하여 左關(肝)이 右關(脾)보다 크면 肝大肺小 太陰人으로 보고, 右關(脾)이 左關(肝)보다 크면 脾大腎小 少陽人으로 본다. 또 앞 page의 四端論에서 龍城山人은 心大 = 肝大라 하였으니 左關(肝)이 右關(脾)보다 크면 肝大肺小 太陰人으로 본다. 그리고, 右關(脾)이 左關(肝)보다 크다고 할 때 心大肺小에서 心大하면 心火를 억제하는 官인 腎水가 제 機能을 발휘하지 못해서 心大하여진 것이므로, 腎水는 肺小다음의 두 번째로 작을 것이다(腎小), 腎小 脾大하니 少陽人으로 본다. 故로 臨床上 太陰人(北方)과 少陽人(東方)을 相互 誤診하기 쉽다고 하였다. 이는 東原 李正來 先生이 《東洋醫藥原理》⁷⁾에서 주장한 바와도 같다.

② 陽人(心小 肺大者)

肺大者(右寸 > 左寸)에서 양쪽 關部를 비교하여 右關(脾)이 左關(肝)보다 크면, 肺大肝小 太陽人으로 보고, 左關(肝)이 右關(脾)보다 크면 腎大脾小 少陰人으로 본다. 이는 앞 page의 四端論에서 龍城山人 李는 心小肺大者는 心小 = 肝小, 肺大 = 腎大

하다고 하여 바꾸어 말하면 心小肺大는 肝小腎大하다. 肝小 肺大는 太陽人이고, 腎大 脾小는 少陰人이다. 故로 臨床上 太陽人(南方)과 少陰人(西方)을 相互 誤診하기 쉽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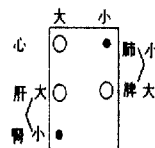
龍城山人 李는 이와같이 陰人(心大肺小)과 陽人(心小肺大)을 太陰人·少陽人과 太陽人·少陰人으로 나눈 後, 다시 各 體質別로 이미 밝혀진 二臟의 大小이외에, 밝혀지지 않는 나머지 二臟의 大小를 구분하였다. 즉 太陰人은 肝大 肺小한데 肺脾肝腎 四臟中에서 肝이 가장 大하고, 肺가 가장 小하다. 肝木의 官인 肺金이 제일 弱하니 肝木이 克土한다. 이때 脾土는 肝木보다 小하다. 脾土가 肝木에게 克을 당하여 土克水할 힘을 잃으니, 腎水는 가장 弱해진 肺金보다 大하다. 이 경우 脾와 腎의 相互 大小에 따라 같은 太陰人이라도 脾小腎大한 少陰形의 太陰人이 나올 수 있고, 脾大腎小한 少陽形의 太陰人이 나올 수 있다. 나머지 體質도 이와 같이 유추하면 다음과 같은 8 體質을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따른 八卦脈型圖는 다음과 같다.

표 2. 龍城山人 李昌遠의 八體質論

肝大肺小한 太陰形의 少陰人	脾大腎小한 少陽形의 太陽人
肺大肝小한 太陽形의 少陽人	腎大脾小한 少陰形의 太陽人
脾大肝小한 太陽形의 少陰人	脾大腎小한 少陽形의 太陰人
肝大肺小한 太陰形의 少陰人	腎大脾小한 少陰形의 太陰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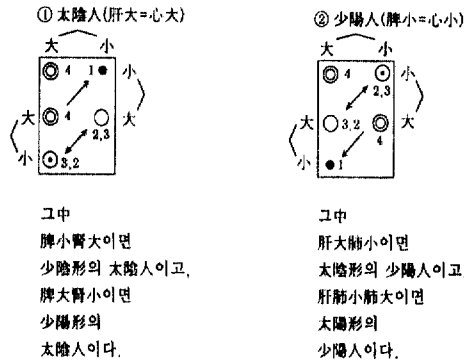
그림 2. 李昌遠의 四象醫學에 나타난 陽人의 八卦脈型圖

(7) 前述한 陽人에 있어서



①의 太陰人은 肝大肺小者이다. 太陰人의 脾는 肝보다 작고, 太陰人의 腎은 肺보다 크다.

②의 少陽人은 脾大腎小者이다. 少陽人의 肝는 脾보다 작고, 少陽人의 肺는 腎보다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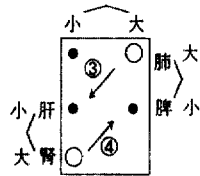


「東醫壽世保元」의 擴充論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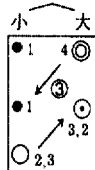
太陰人之腎云... 이곳은 太陰人의 腎은 肺보다 크다는 뜻.
少陽人之肺云... 이곳은 少陽人의 肺는 腎보다 크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그림 3. 李昌遠의 四象醫學에 나타난 陰人의 八卦脈型圖

(2) 前述한 陽人에 있어서 ③의 太陽人은 肺肝 肝小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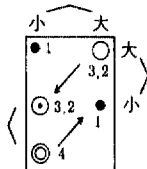


③ 太陽人



太陽人의 脾는 肝보다 크고,
太陽人의 腎은 肺보다 작다.
그중(肝小=心小) 脾大腎小이면
少陽形의 太陽人이고,
脾大腎大이면 少陰形의
太陽人이다.

④ 少陰人



少陰人의 肝는 脾보다 크고,
少陰人의 肺는 腎보다 작다.
그중(脾小=心小) 肺大肝小이면
太陽形의 少陰人이고,
肺小肝大이면 太陰形의
少陰人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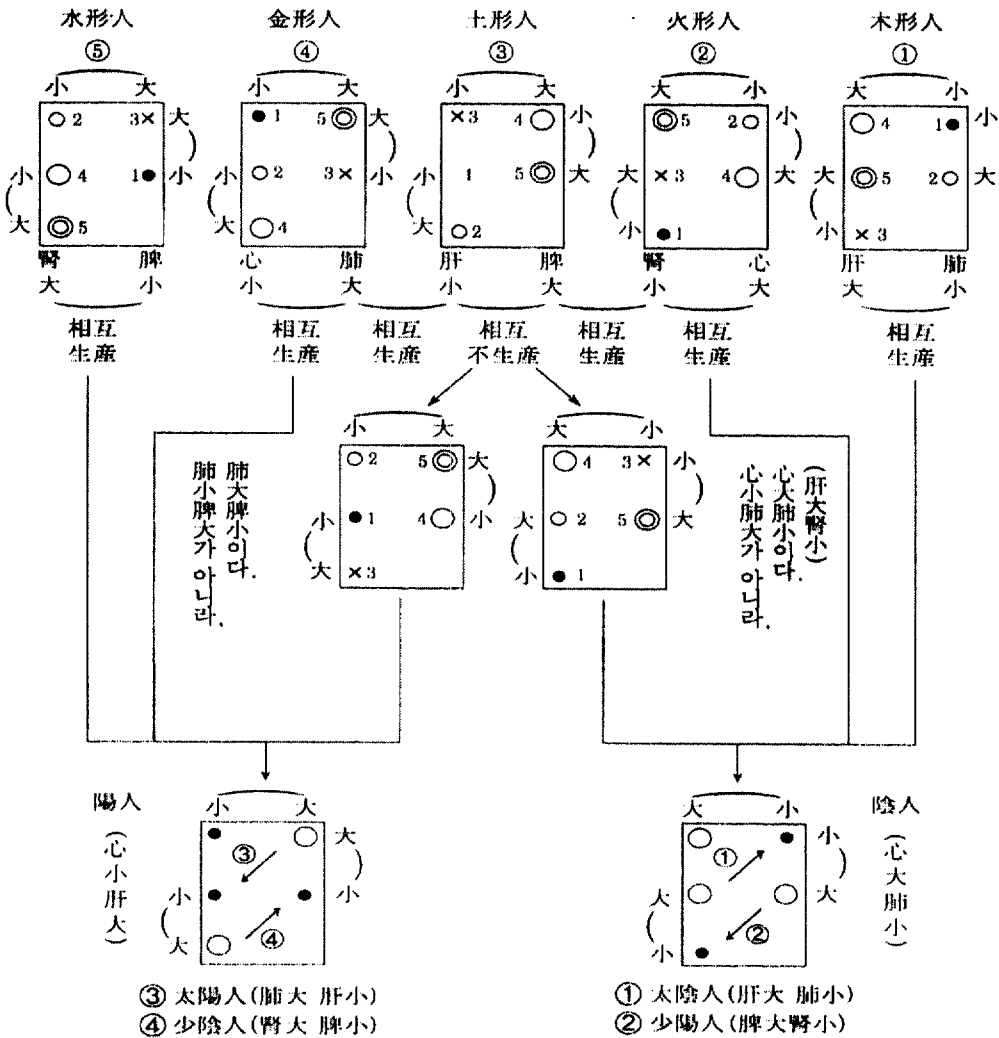
擴充論에서

太陽人之脾云... 이 뜻은 太陽人之脾는 肝보다 크고,
少陰人之肝云... 이 뜻은 少陰人之肝은 脾보다 크다는 뜻으로 해석한다.

또, 龍城山人 李는 體質에 따른 藥治는 東武公의 四象處方에 依하고, 食餌治는 八卦脈型에 依하며, 體質鍼 治療는 五行 二十四鍼法을 適用한다고 하였다. 本考에서는 體質鍼에 관해서 局限해서 論하기로 하였는 바, 龍城山人 李의 五行 二十四鍼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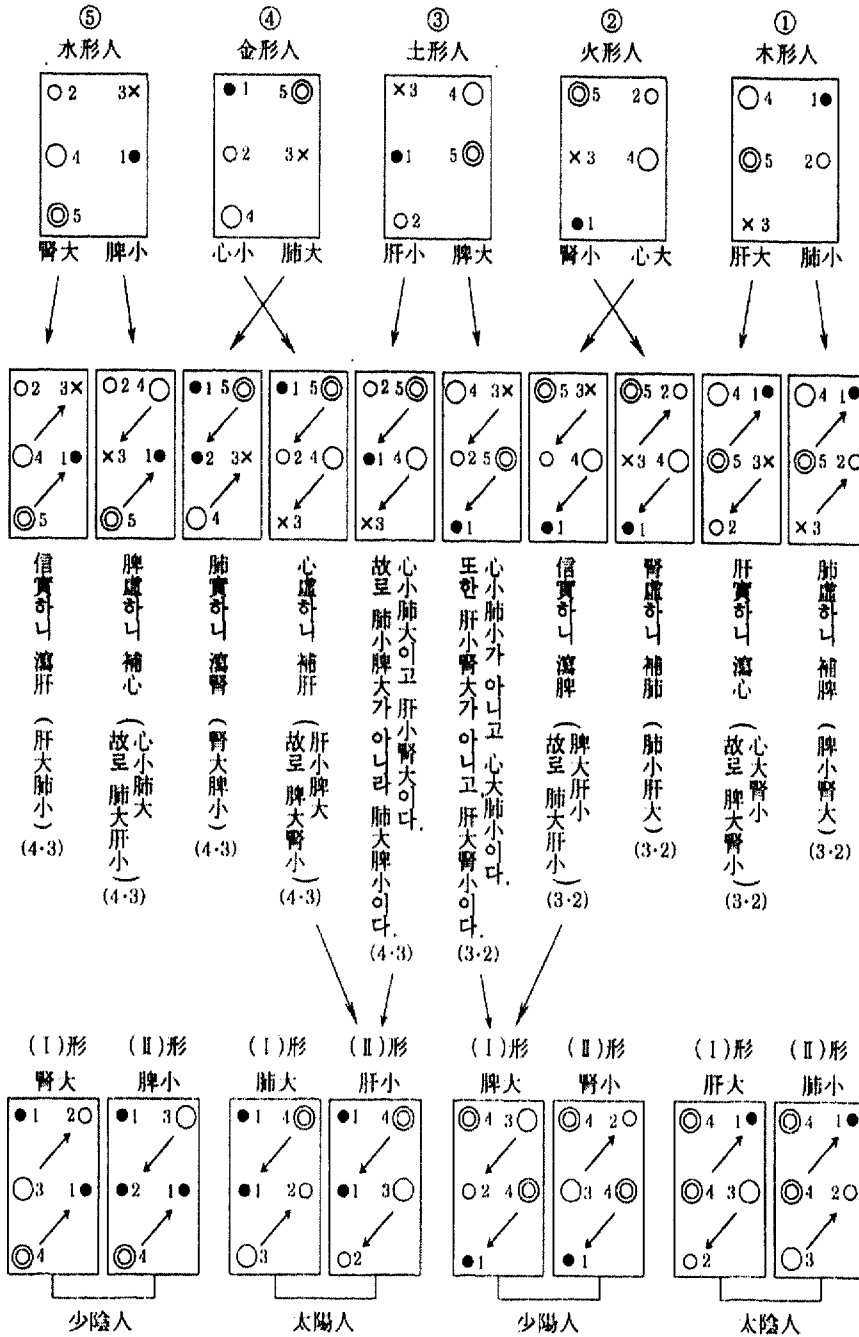
그림 4. 五行(象)과 四象人의 체질분류비교

五行(象)人과 四象人



* ③土形人之脾大者와 肝小者는 완전히 다른 두 體質이다. 脾大者는 脈型이 ②火形人과 같이 心大肺小하고, 肝小者는 ④金形人과 같이 心小肺大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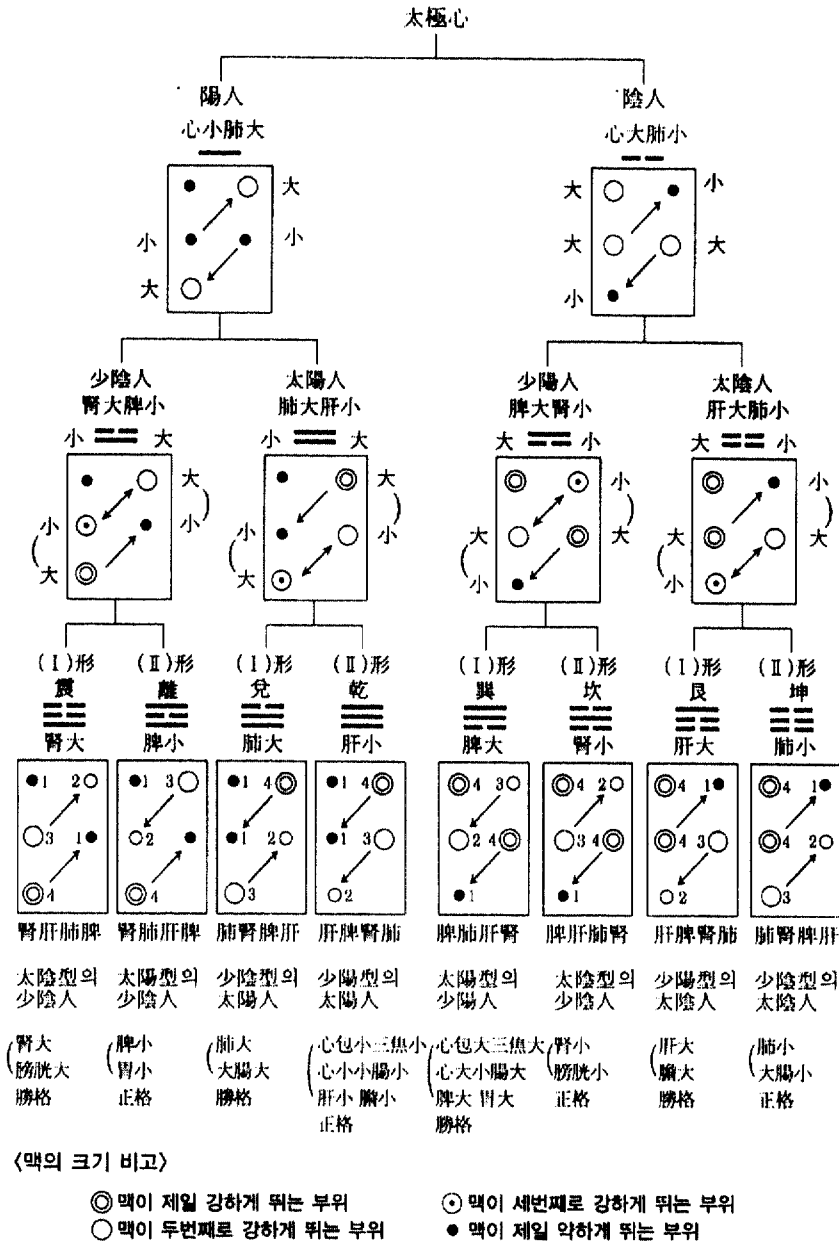
그림 5. 李昌遠의 四象醫學에 나타난 五型人의 체질분류표



먼저 龍城山人 李는 體質分類에 있어서 四象人으로 分類해야지, 五行(象)人으로 分類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 理由는 五行(象)人중 土形人의 脈型때문

이라고 주장하면서, 土形人은 脾大 肝小한테, 脾大者는 脈型이 火形人과 같이 心大 肺小하고, 肝小者는 脈型이 金形人과 같이 肺大 心小하다고 하였다.

그림 6. 四象體質 - 八卦脈型 - 二十四體質鍼 圖表



즉 土形人의 脈型 2가지가 火形人과 金形人에 중복되므로, 五行(象)人이 아니라 四象人으로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 도표에서 木形人의 경우, 木形人은 肝大 肺小者인데 肺小者와 肝大者의 脈型이 같을 수는 없다.

鍼治療에 있어서 肺小者는 肺正格을 施術해야 하고, 肝大者는 肝勝格을 시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體形人의 경우도 이와 동일하게 類推하면 各體質別 鍼法을 算出할 수 있다.

단, 이때 脈型上 火形人에 土形人의 脈型이 중복

되고, 金形人에 土形人의 脈型이 중복되므로, 이에 따른 體質別 五行鍼法도 木形人(太陰人)의 鍼法 4가지, 水形人의 鍼法 4가지, 火形人(少陽人)의 鍼法 8가지, 金形人(太陽人)의 鍼法 8가지 도합 24가지의 五行二十四鍼法을 用한다고 하였다.

體質을 五行(象)人으로 보느냐 四象人으로 보느냐의 問題는, 五行(象)人으로 본다면 土形人 때문에 五行(象)人이 될 수 없다. 四象人으로 본다면, 心에 있어서 心大者와 心小者의 脈型을 따로 내세울 수 없는데 心大者는 脾大者와 脈型이 같고, 心小者는 肝小者와 脈型이 같기 때문에 心大者와 心小者를 따로 내세울 필요는 없다. 그러나 心大者와 脾大者 그리고 心小者와 肝小者의 治療는 別個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全體의인 面에서 볼 때 心大肺小者는 陰人(太陰人·少陽人)이고, 心小肺大者는 陽人(太陽人·少陰人)이니 이것이 四象人으로 分類되는 所以인 것이다. 이를 요약하여 四象體質 - 八卦脈型 - 二十四體質鍼 圖表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龍城山人은 五行二十四鍼法으로 體質鑑別 및 治療에 適用한다고 하였다. 前述한 바와 같이 人間體質을 細分하면 二十四形態가 있기 때문에 이 鍼法을 이용하여 체질 감별 및 치료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 鍼法은 三經補瀉法이다. 補瀉는 迎隨補瀉를 한다. 鍼은 3cm길이의 細鍼을 사용한다. 4回 反復한다. 이 鍼法은 病症에 관계없이 施術하며 各種 病에 有效하다. 鍼의 角度는 수직에서 4~5도 정도로 비껴서 施術한다. 경우에 따라서 4回·6回·8回의 偶數로 反復 施術한다. 1·3·5·7·9의 奇數로는 施술하지 않는다.

龍城山人의 二十四 體質鍼을 살펴보면, 太陰人과 少陰人은 各各 (I)型和 (II)型으로 나누어 各 體質別로 4가지 種類의 體質鍼法은 施術하도록 하고 있다. 少陽人과 太陽人은 龍城山人의 주장에 따르면, 體質은 4가지 體質 뿐으로써, 土形人은 火形人과 金形人에 중복되어서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故로 各 體質別로 8가지 種類의 體質鍼法을 施術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의 體質鍼法은 舍岩五行鍼 虛實補瀉의 正格과 勝格을 그대로 차용하여 施術하였다. 예를 들어 少陽人 (II)型 膀胱虛 體質인 경우, 三經補瀉를 고려하면 膀胱正格인 商陽·至陰 補, 三里·委中 瀉를 그대로 施術하도록 한다. 右病左治가 施鍼處이며, 一經 補瀉만 한다면 至陰 補만 해도 된다.

龍城山人은 體質감별이 잘못되어 誤鍼하면 부작용이 나며, 그런 때는 이미 놓았던 鍼을 正反對로 施鍼하여 취소하고, 다시 施術하거나 또는 취소하는 鍼을 놓지 않고 그대로 다시 施術하여도 좋다고 하였다. 龍城山人은 이 鍼法을 적용하여 四象體質 - (八卦脈型 - 二十四形態)人의 體質鑑別 및 治療를 한대라고 하였다.

또, 龍城山人은 臨床經驗에 의해서 이 體質鍼法을 運用하여 一鍼으로써 治療하는 경우도 많지만 反面, 같은 體質, 같은 病症이라 해도 病勢의 輕重에 따라 治療가 不可한 경우도 많았고, 患者의 연령이 높을수록 그 효과가 적다 하였다. 그 이유는 老衰하여 죽어가는 人生이기에 그러한 것이지, 鍼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는 鍼뿐만 아니라 藥이나 食餌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표 3. 太陰人(肝大肺小)의 體質鍼 施術 穴位

		五行二十四鍼法		施鍼處	一經補瀉
II型	大腸虛	三里補	曲池補 陽穀瀉	陽谷瀉	右病左治 曲池補
	肺虛	太白補	太淵補 少府瀉	魚際瀉	左病右治 太淵補
I型	膽實	商陽補	竅陰補 陽谷瀉	陽輔瀉	右病左治 陽輔瀉
	肝實	經渠補	中封補 少府瀉	行間瀉	左病右治 行間瀉

표 4. 少陽人(脾大腎少)의 體質鍼 施術 穴位

		五行二十四鍼法		施鍼處	一經補瀉
II型	膀胱虛	商陽補	至陰補 三里瀉	委中瀉	右病左治 至陰補
	腎虛	經渠補	復溜補 太白瀉	太谿瀉	左病右治 復溜補
I型	三焦實	通谷補	液門補 三里瀉	天井瀉	左病右治 天井瀉
	心包實	陰谷補	曲澤補 太白瀉	大陵瀉	左病右治 大陵瀉
	小陽實	通谷補	前谷補 三里瀉	小海瀉	右病左治 小海瀉
	心實	陰谷補	少海補 太白瀉	神門瀉	左病右治 神門瀉
	胃實	臨泣補	陷谷補 (商陽)瀉	厲兌瀉	右病左治 厲兌瀉
	脾實	大敦補	隱白補 (經渠)瀉	商丘瀉	左病右治 商丘瀉

표 5. 太陽人(肺大肝小)의 體質鍼 施術 穴位

		五行二十四鍼法				施鍼處	一經補瀉
II型	膽虛	俠谿補	通谷補	(厥陰)瀉	商陽瀉	右病左治	俠谿補
	肝虛	陰谷補	曲泉補	(經渠)瀉	中封瀉	左病右治	曲泉補
	三焦虛	臨泣補	中渚補	通谷瀉	液門瀉	右病左治	中渚補
	心包虛	大敦補	中衝補	陰谷瀉	曲澤瀉	左病右治	中衝補
	小腸虛	臨泣補	後谿補	通谷瀉	荊谷瀉	右病左治	後谿補
I型	心虛	大敦補	少衝補	陰谷瀉	少海瀉	左病右治	少衝補
I型	大腸實	陽谷瀉	陽谿瀉	通谷瀉	二間瀉	右病左治	二間瀉
	肺實	少府瀉	魚際瀉	陰谷瀉	尺澤瀉	左病右治	尺澤瀉

표 6. 少陰人(腎大脾少)의 體質鍼 施術 穴位

		五行二十四鍼法				施鍼處	一經補瀉
II型	胃虛	陽谷補	解谿補	陰谷瀉	臨泣瀉	右病左治	解谿補
	脾虛	少府補	大都補	大敦瀉	隱白瀉	左病右治	大都補
I型	膀胱實	三里瀉	委中瀉	臨泣瀉	束骨瀉	右病左治	束骨瀉
	腎實	太白瀉	太谿瀉	大敦瀉	湧泉瀉	左病右治	湧泉瀉

脾實者 胃實者是 (商陽·經渠)의 穴을 생략하여도 좋고, 그대로 施鍼하여도 좋다. 膽虛者 肝虛者는 (厥陰·經渠)의 穴을 생략하고, 商陽 2회, 中封 2회로 施鍼하여도 좋고, 그대로 施鍼하여도 좋다.

2. 龍城山人의 四象學說 및 體質鍼에 대한 문제점

龍城山人은 土形人의 脈型이 火形人과 金形人에 중복되므로, 五行(象)人으로 分類하는 것은 맞지 않고, 四象人으로 分類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그러나 龍城山人이 土形人의 脈型圖가 火形人과 金形人의 脈型圖와 중복된다고 하지만, 土形人은 <靈樞·通天篇>과 <陰陽二十五人篇>⁸⁾에도 나와있는 體質이며, 廉東煥 先生은 그의 《五象體質醫學》⁹⁾에서 土形人의 土實木虛 體質을 分類하고 있어 土形人의 存在를 인정하고 있다.

또 五行二十四鍼法도 體質의 臟腑大小에 따라 正格과 勝格을 사용하니, 결국 肘膝關節 以下の 五輸穴을 이용한 五行鍼法을 龍城山人은 그대로 體質鍼으로 利用하고 있다. 이는 體質鍼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기 보다는, 五行鍼法의 體質에 따른 확대運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思料된다. 또, 이

學說이 과연 臨床에서 龍城山人의 主張처럼 適用될지는 앞으로의 과제이며, 다른 體質鍼法과도 比較하여 有效性 및 妥當性이 존재하는지는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

IV. 결론

龍城山人 李昌遠 先生의 四象體質과 體質鍼을 考察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龍城山人은 첫째, 左右比較脈診으로 體質을 鑑別한 후, 脈診圖上 土形人은 火形人과 金形人에 중복되기 때문에 土形人은 存在할 수 없다고 하고, 體質은 四象體質뿐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土形人의 存在는 <靈樞·通天篇>과 <靈樞·陰陽二十五人篇>에 나와있는 體質이므로, 脈診圖上 土形人의 存在를 부정하는 것은 龍城山人의 오류라고 생각한다.

2. 龍城山人은 體質別 鍼法을 提示했으나 이 鍼處方들은 모두 舍岩鍼法의 正格과 勝格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니, 體質鍼法이라기보다는 舍岩五行鍼法의 體質에 따른 확대運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體質구분에 있어서 龍城山人은 左右比較脈診에 의해 心大肺小者 陰人과 心小肺大者 陽人으로 各各 나누어 체질을 구분하였다. 論者의 견해로는, 脈診에 의한 體質 鑑別은 그 유의성을 어느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臨床經驗이 미숙하면 診斷上의 오류가 發生할 可能性이 있다는 점이 問題이다.

V. 참고문헌

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四象醫學. 서울: 집문당. 1997:380-381.

2. 弟42期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卒業準備委員會. 精選 韓國의 體質理論. 서울:大星文化社. 1994:62-63.
3. 李炳幸. 鍼道原流重磨. 서울:행림출판사. 1974:20-33
4. 조종진. 권도원의 체질침 연구(KOMA 자료실 동의학당 갈무리)
5. 尹暢烈. 干支와 運氣에 대한 研究. 서울:경희대학교 대학원. 1987.
6. 李昌遠. 四象醫學. 서울. 필사본. 1984:3-25.
7. 李正來. 東洋醫藥原理. 대전:온누리출판사. 1988:38-40.
8. 精校黃帝內經靈樞. 洪元植編著. 서울: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274-280, 302-304,
9. 廉東煥. 五象體質醫學原論. 강릉: 인쇄본. 1995:14-29.